

#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 간호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권진희<sup>1</sup>, 최봉실<sup>2\*</sup>

<sup>1</sup>남부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sup>2</sup>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rofessionalism - For First Graders of Nursing Students

Jin-Hee Kwon<sup>1</sup>, Bong-Sil Choi<sup>2\*</sup>

<sup>1</sup>Studen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sup>2</sup>Professor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을 실시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분석대상은 203명이었다. 자료는 기술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과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 $\beta=.51, p<.001$ )이었고, 그 다음으로 심리적 안녕감( $\beta=.31, p<.001$ ), 셀프리더십( $\beta=.14, p=.043$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변수들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총 23.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 역량을 강화시키고 셀프리더십을 함양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and to prepare measures to enhance them.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of first-year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which collected data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October 1 to October 31, 2019, and there were 203 analyzed with SPSS 22.0.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cluded academic self-efficacy ( $\beta = .51, p < .001$ ), followed by psychological well-being ( $\beta = .31, p < .001$ ), and self-leadership ( $\beta = .14, p = .043$ ). These variables explained 23.8% of the total variance in nursing professionalis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various curriculums and programs to improve academic self-efficacy, strength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ultivate self-leadership, thereby improving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self-efficacy,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Corresponding Author : Bong-Sil Cho(choibs@nambu.ac.kr)

Received February 26, 2020

Accepted May 20, 2020

Revised April 27, 2020

Published May 28,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보건으로 현장에서 대상자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의 역량과 업무는 점차 강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간호전문직에서는 사례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결정으로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전문인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1].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 학습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며 전문적 간호교육을 받는다[2]. 체계적 간호 교육을 통한 간호전문직관의 긍정적인 인식의 획득은 간호 정체성을 높이며 취업 후에도 간호의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3]. 그래서 간호전문직에 대한 견해와 가치관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형성하여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4].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에게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비판적 사고와 자기관리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개념의 셀프리더십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5].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이 판단하고 의사 결정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셀프리더십으로 자기 스스로 이끌어 가는 자기 통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3].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등과 같은 주도성을 강조하고 내적 동기부여와 자기관리에 중점을 둔다[6].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 계획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셀프리더십의 속성은 보다 획기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7].

한편, 간호대학생은 전공 교과와 전공 외 교과, 학교생활 뿐 아니라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에 대한 부담, 전문지식과 기술의 한계, 정서적 스트레스, 과제물 등으로 인해 학업 중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8].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국가시험으로 최종 학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므로 국가고시와 연관된 다양한 교육과정과 임상실습으로 인한 개인의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학업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9]. 이런 학업적 스트레스는 학과 적응, 전공만족도 등과 연관되어 학과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전공만족도가 낮으면 재학 중에 전공을 포기한다[10].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학업 상황에서 과제실행이나 목표설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인 학업적 자기 효능

감은 성공적인 직업 활동으로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다[11].

또한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은 학업성취에 대한 걱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적 발전과 만족감은 높으나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2]. Ryff[13]는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잠재력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의 경험에서 의미와 목표를 찾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자신의 욕구에 맞게 환경을 다스리며,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학생 본인의 삶의 질, 대학생활 만족감과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기능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5],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14].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게 될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이들이 심리적 안녕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 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은 간호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생소한 의료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전문 간호에 필요한 잠재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1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승희의 연구[16]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7,15]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변수들과 간호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나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포함하여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와 영향요인을 확인하며, 긍정적 간호전문직관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시도하였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한다.
- \*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의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간호대학의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공과목과 실습 교육 시작되기 전 시점인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210명 학생 중 응답이 미흡한 자료를 제외한 총 203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G\*Power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 중간정도의 효과인 .15, 유의수준은 5%, 검정력 90%, 예측변수의 수(Number of predictors) 13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162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설문의 문항 수가 많아 탈락의 위험이 높아서 일반적 탈락률 20%보다 높은 30%를 적용하여 표본 수를 210명으로 설정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 등[13]이 개발하고, 김명소 등[17]이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6 문항, 6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0$ 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이었다.

#### 2.3.2 학업적 자기 효능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김아영과 박인영[1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8 문항, 3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아영과 박인영[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자신감 .74, 자기조절효능감 .76, 과제난이도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자신감 .81, 자기조절효능감 .81, 과제난이도 .74이고 전체 Cronbach's  $\alpha=.84$ 이었다.

#### 2.3.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 과 Neck[18]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척도(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를 신용국 등[19]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35 문항, 9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신용국 등[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 2.3.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oon 등[20]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9 문항, 5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윤은자 등[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1이었다

###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s 검정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분포는 20세 이하가 58.6%로 가장 많았고, 21~25세가 29.6%로 25세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72.9%로 많았고, 종교는 없는 학생이 58.6%이었으며, 경제상태는 중 73.9%, 상 15.8%로 중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거주상태는 자취가 38.9%, 부모님과 동거 34.5%, 기숙사 17.7% 순이었고, 교우관계 만족도는 높음 이상이 57.1%로 과반 이상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은 안하는 학생이 69.5%로 많았다. 리더경험이 없는 학생이 87.7%로 다수를 차지하고, 리더십 역량은 보통 정도가 61.1%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 49.8%, 높음 22.7%, 낮음 18.2%, 매우 낮음 5.9%, 매우 높음 3.4% 순으로 나타났다.

#### 3.2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심리적 안녕감의 점수는 3.25±0.47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점수는 3.00±0.47점, 셀프리더십의 점수는 3.43±0.51점 간호전문직관의 점수는 3.71±0.57으로 나타났다.

#### 3.3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간호전문직관( $r=.144, p=.041$ ),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 $r=.359, p<.001$ ),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 $r=.153, p=.029$ )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 $r=-.417, p<.001$ ), 심리적 안녕감과 셀프리더십( $r=.372, p<.001$ ),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셀프리더십( $r=-.187, p=.007$ )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03)

Variables		n	%
Age	Under 20	119	58.6
	21~25	60	29.6
	26~30	11	5.4
	Over 31	13	6.4
Gender	Male	55	27.1
	Female	148	72.9
Religion	Yes	84	41.4
	No	119	58.6
Economic Status	Low	21	10.3
	Middle	150	73.9
	High	32	15.8
Residence Status	Parents	70	34.5
	Dormitory	36	17.7
	Live alone	79	38.9
	Etcetera	18	8.9
Satisfaction of friendship	Very Low	4	2.0
	Low	13	6.4
	Middle	70	34.5
	High	81	39.9
	Very High	35	17.2
Group activity	Yes	62	30.5
	No	141	69.5
Leadership experiences	Yes	25	12.3
	No	178	87.7
Leadership competency	Very Low	8	3.9
	Low	44	21.7
	Middle	124	61.1
	High	20	9.9
	Very High	7	3.4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Very Low	12	5.9
	Low	37	18.2
	Middle	101	49.8
	High	46	22.7
	Very High	7	3.4

Table 2.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self efficiency and Self leadership (N=203)

	Min	Max	Range	M±SD
Psychological wellbeing	1.98	4.8	1~5	3.25±0.47
Academic self-efficacy	1.82	4.71	1~5	3.00±0.47
Self-leadership	1.71	5	1~5	3.43±0.51
Nursing professionalism	1.24	4.97	1~5	3.71±0.57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self efficiency, Self leadership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203)

Variable	Nursing professionalism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self-efficacy	Self- 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1			
Psychological wellbeing	.144 (.041)	1		
Academic self-efficacy	.359 (<.001)	-.417 (<.001)	1	
Self- Leadership	.153 (.029)	.372 (<.001)	-.187 (.007)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professionalism (N=203)

Variables	B	SE	β	t	p	공차	VIF
(Constant)	.47	.36		1.304	.194		
Psychological wellbeing	.20	.048	.31	4.294	<.001	.736	1.358
Academic self-efficacy	.64	.085	.51	7.583	<.001	.825	1.213
Self- Leadership	.08	.041	.14	2.039	.043	.860	1.162
Adj R <sup>2</sup> =.238 F=22.01 p<.00							

### 3.4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은 Table 4와 같다. 상관분석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상관이 있다고 나타난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간호전문직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22.01, p<.001),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 분포성, 다중 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736~.86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Inflation Factor, VIF)는 1.162~1.358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2.020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차와 등분산성 및 정규 분포성을 모두 만족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β=.51, p<.001)이었고, 그 다음으로 심리적 안녕감(β=.31 p<.001), 셀프리더십(β=.14, p=.043)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변수들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총 23.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확인하고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

더십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점수는 3.26점으로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강미경[21]의 연구결과인 3.34점과 유사한 수준이고, 김영선과 서지영[22]의 연구결과인 4.0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이 스트레스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23] 각 연구마다 자료수집 시기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3.0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고미숙[24]의 연구결과 3.14점, 한승희[16]의 연구결과 3.14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이다. 하지만 간호학과 같은 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25]의 결과 3.81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다. 1학기 이상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6]의 3.72점, 3년제와 4년제 최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7]의 3.70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3.71점으로 중간이상의 높은 결과로 4학년 대상의 연구[28]의 3.79점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4]의 4.08점,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승희

[16]의 연구결과 4.15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고,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은희([29]의 연구결과로 나타난 3.03점, 1,2,3학년 대상의 연구[1]의 3.48점, 4학년 대상으로 연구한 김창희와 김정미[7]의 3.60점, 양희모[15]의 3.6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여줘 학년별 비교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1,3,14,16,30,31]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심리적 안녕감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결과가 없어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선행조건이며 특히 간호전문직관은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 리더십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었고, 그 다음으로 심리적 안녕감, 셀프리더십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총 23.8% 설명하였다. 학업적 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승희[16]의 연구와 일치하며, 학업적 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작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11]이므로 학업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업적 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영향요인인 심리적 안녕감과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데 연구의 의

의가 있다. 이는 간호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격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7,15]와 일치하였다.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며, 목표 설정과 그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을 정하여 틀에 맞추어 제공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주변의 단서들을 활용하며,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자율성과 열정을 수반하게 된다고 하였다[32]. 이에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셀프리더십 훈련 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향요인인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과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 적극적인 중재안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갈 때 긍정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자신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예측하여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긍정적인 영향을 키울 수 있도록[7],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에 맞추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5]을 높일 수 있도록,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29]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이 모두 보통이상 수준이었으며,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업적 자기 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셀프리더십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 역량을 강화시키고 셀프리더십을 함양

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상자와 지역을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검증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학업적 자기 효능감, 심리적 안녕감과 셀프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여 다양한 교육전략을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을 1학년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과 대상자를 통한 반복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H. J. Park. (201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27-236.  
DOI:10.5977/jkasne.2015.21.2.227
- [2] H. J. Park & I. S. Jang. (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14-23.  
DOI:10.5977/JKASNE.2010.16.1.014
- [3] Y. M. Kwon, & E. J. Yeun. (2007). A Co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285-292.
- [4] H. O. Jeon. (2016).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ocial Self-efficac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2(2), 171-181.  
DOI:10.5977/jkasne.2016.22.2.171
- [5] J. I. Kim. (2018).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to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574-583.  
DOI:10.5762/KAIS.2018.19.12.574
- [6] T. J. Jang & M. Moon. (2016).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4), 344-352.  
DOI:10.11111/jkana.2016.22.4.344
- [7] C. H. Kim & J. Y. Kim. (2019).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5-16.  
DOI:10.5977/jkasne.2019.25.1.5
- [8] J. K. Kim. (2014).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for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47-59.  
DOI:10.5977/jkasne.2014.20.1.47
- [9] F. Timmins & M. Kaliszer. (2002). Aspects of nurse education programs that frequently cause stress to nursing students: fact-finding sample survey. *Nurses Education Today*, 2, 203-231.
- [10] S. H. Sok, D. S. Shin & K. B. Kim. (2006). A study of co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4), 475-481.  
UCI : G704-001695.2006.15.4.009
- [11] A. Y. Kim & I. Y. Park.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 [12] A. C. M. Freitas, R. M. M. Malheiros, B. S. Lourenço, F. F. Pinto, C. C. Souza & A. C. L. Almeida. (2018). Intervening factors in the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Nursing UFPE online*, 12(9), 2376-2385.
- [13] C. D. Ryff & C. L. M. Keyes.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DOI:10.1037/02-3514.69.4.719
- [14] E. A. Kim & K. S. Jang. (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p.312-32.  
DOI:10.5977/jkasne.2012.18.2.312
- [15] H. M. Yang. (2019). Effects of Other-awareness, Self-leadership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graduation yea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9), 193-202.  
DOI:10.35873/ajmahs.2019.9.9.017
- [16] S. H. Han. (2018). The Effecting Factors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y, and Sociology*, 8(12), 353-363.  
DOI:10.21742/AJMAHS.2018.12.85
- [17] M. S. Kim, H. W. Kim & G. H. Cha. (2001). Analyses on

-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15(2), 19-39.
- [18] J. D. Houghton & C. P. Neck.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DOI:10.1108/02683940210450484
- [19] Y. G. Shin, M. S. Kim & Y. S. Han. (2009).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3), 313-340. DOI:10.16983/kjsp.2009.6.3.377
- [20] E. J. Yeun, Y. M. Kwon & K. H. Ahn. (2006). Development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099. DOI:10.4040/jkan.2005.35.6.1091
- [21] M. K. Kang. (2018). Factor Affe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Future Convergence Contents Realiz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ssion*, 387-38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41788>
- [22] Y. S. Kim & J. Y. Seo. (2015). Construction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6), 1439-1452. DOI:10.7465/jkdi.2015.26.6.1439
- [23] F. X. He, B. Turnbull, M. N. Kirshbaum, B. Philips & P. K. Yobas. (2018). Assessing stress, protective facto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Nurse Education Today*, 68, 4-12. DOI:10.1016/j.nedt.2018.05.013
- [24] M. S. Ko. (2019).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 Health Commun*, 14(2), 85-92. DOI:10.15715/kjhcom.2019.14.2.85
- [25] S. J. Han.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5(5), 559-566. DOI:10.7475/akjan.2013.25.5.559
- [26] N. Y. Yang & S. Y. Moon. (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2), 216-225. DOI:10.11111/jkana.2011.17.2.216
- [27] B. M. Seo. (2014).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8(4), 149 - 161. DOI:10.12811/kshsm.2014.8.4.149
- [28] H. S. Kang, Y. S. Kang & Y. M. Kim.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ego resili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senior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4), 219-229. DOI:10.14257/ajmahs.2016.04.14
- [29] E. H. Kim. (2016). Relationship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4(1), 532-541. DOI:10.15205/kschs.2016.4.1.532
- [30] E. H. Hwang & S. J. Shin. (2017).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1(1), 97-108. DOI:10.5932/JKPHN.2017.31.1.97
- [31] K. I. Jeong, H. G. Son & K. S. Jeong. (2018). The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3), 1595-1607.
- [32] Manz, C. C. (1998). *Mastering self-leadership :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권진희(Jin-Hee Kwon)

[장학원]



- 2003년 2월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학사)
- 2018년 2월 : 남부대학교 보건경영대학원 간호학(석사)
- 2020년 2월 : 남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박사수료)
- 2018년 9월 ~ 2019년 2월 : 목포가톨릭대학교 겸임강사
- 2019년 3월~ 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강사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노인간호, 리더십
- E-Mail : gnygny7007@hanmail.net

## 최봉실(Bong-Sil Choi)

[장학원]



- 1987년 2월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학사)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석사)
- 2004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지역사회정신건강
- E-Mail : choibs@nambu.ac.kr